



열다섯번째 이야기

2017 두번째 탐방-인도네시아 테이블



인도네시아는 작년까지만 해도 동남아 A에 속했습니다. 크지만 작은 나라 인도네시아는 2017년부터 원대한 선교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테이블로 독립하였습니다. 인도네시아의 면적은 한반도의 약 9배로 이슬람교가 82.1%로 기독교 12.8%며, 기독교 핍박지수 46위라는 인도네시아는 인도양과 태평양에 있는 17,508개의 섬들(약6,000)로 구성된 면적이 큰 공화국으로 수도는 자카르타입니다. 인도네시아 모든 시민은 6가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슬람교, 개신교, 로마 카톨릭, 힌두교, 불교, 유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명목상 그리스도인도 토속신앙과 혼합된 채

교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봉해남 강성자 선교사님에 사역이 만만치 않습니다.

이 문제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곳입니다. 하지만 우리 봉해남 선교사님과 강성자 선교사님이 잘 적응하시면서 내공을 들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. 이제는 언어도 정복하시어 현지언어로 비 과목을 인도하실 정도니 얼마나 감사한지요!BEE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선교사님으로 먼저 봉해남/강성자(희욱, 헤리, 민우), 로비 선교사(제시카 조슈아 엘리사 조나단), 주안 가르로스 ,김태호/장윤희(현준, 현민)입니다.

우리 기도테이블 인도네시아 팀 구성은 모두 24분이 계시지만 사정상 못 오시는 분이 많고 고정적으로 착실하게 잘 나오시는 분은 13분이고, 더 재미있는 것은 이 13분 중 루체가 12분이라는 사실 재미있으시죠?

그래서 지난번 루체가 케냐 아우리치 갔을 때에는 심동엽목사님 혼자만 나와 자리를 지켜주셨답니다. 큰 사명을 띤 집 나간 식구들 대신 굳건하게 나간 자리 지키는 모습이 대견하시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신지 강부순 장로님께서 루체를 대신해 앉아 조찬도 함께 해 주셨답니다.

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도네시아팀은 목회자가 5분 전도사님 3분이 계십니다.



먼저 팀장이신 이춘호 목사님: 동서로 열심히 뛰시며(러시아 중국 등) 신학교 성경교육에 열을 올리시고 기타 반주로 찬양을 멋지게 하시는 재주꾼이십니다. 자꾸 밖으로 나돌면 선교사로 나가시는 프론테이지가 높다는데 정작 본인의 마음은 어떠신지 궁금하신 분입니다

백영신사모(전도사): 이분도 만만치않죠! 인지치유 내적치유 사역자로 미국 영국 지방 출장이 많으신 작은 거인이십니다.

부 팀장 임재경전도사님: 아담한 체격이지만 루체 반주, 소망교도서 반주, 일대일 사역자, 마태복음 등 사역이 많습니다. 이번에는 처음으로 온비아

갈라디아서 인도를 훌륭하게 마치신 전도사님 입니다.

심동엽 목사님: 일찍이 사업가로 활약하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목자가 되셨습니다. 개척교회를 섬기시면서 침술을 통한 선교도 하시고, 목사님들께 침술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. 침 봉사로 동남아 일대로 아우리치를 자주 가십니다. 침 놓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적, 기적이 종종 일어 난답니다. (찍어오신 동영상을 보았지요) 가끔은 우리조원들의 통증을 들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와 함께 침을 놓아주시기도 합니다. 아픈신 분들 인도네시아 팀으로 오셔서 조용히 심목사님 만나 침 맞으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.

권영조사모님: 교직자로 활약하시다 사모가 되신 분으로 똑똑하고 상냥한 성격을 소유하신 유능하신 햄시바 멤버이며 어디를 가시든지 맹활약을 하시는 분으로 시간을 칼 같이 잘 지키시는 스트롱 우먼 이십니다. 요즘은 시어머니(담낭암)간병하느라 인도네시아 기도 모임에 참석 못하고 계십니다.

박명애 권사님: 열심히 봉사하며(내적치유 사역)사는 권사님이시죠. 요즘 친정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 하시느라 루체도 인도네시아팀에도 잘 못 오신답니다. 본인도 나이가 있어 체력이 딸리는지 자주 몸살을 앓으시네요.

한금선 권사님: 인간 네비게이션으로, 농사꾼으로(춘천에 농장), 소망교도소 공감 인성반 사역자로 자상한 어머니로 또, 소망 사역자에 사위를(양사위삼은) 두 분이나 두신 위대하신 장모님 이십니다. 건강하셔서 케냐 (그 연세에 워십을 했어요)등 아우리치 어디든 거뜰하게 해내시는 스트롱 우먼이십니다.

김양수 권사님: 조용하시며 그러나 적게 적소에 맞은 일을 딱 뿌러지게 하시는 멋쟁이 미인 권사님(치과의사 출신으로 모 대학에 권) 난타, 리더머에 돈 사탄역을 잘 해내신 귀한 권사님 이십니다.

김호숙 자매님: 형제님처럼 케냐에서는 남자들 두.세목을 거뜰하게 해내시며 열심히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가이드 자매. 특히 긍휼한 마음을 가진 너무 멋진 자매입니다.

한상기 목사님: 마음이 유하시고 잘 웃으시며 한 목사님도 러시아 등 신학교에 말씀공부 전달하시려 가끔씩 가십니다. 리더머에 하나님 역할을 훌륭하게 해 내셨는데 사정으로 케냐 까지는 못 가셨지만 ... 얼마 전부터 저희 팀에 누님도 모시고 오십니다. 매형도 목사님 이시며 누님도 전도사님이십니다. 온 가족이 주에 종님들이시니.. 훌륭하시죠 그런데 오누이 사이가 어찌 그렇게 다정한지 부러울 정도예요



한정희사모님(전도사): 한상기 목사님의 누님으로 머리가 흰색이지만 너무 젊으십니다. 요번 이춘호 목사님 부부와 한정희 사모 부부가 러시아 신학교에 성경 말씀 전달하고 오셨답니다. 루체에도 합류하시어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십니다.

조명자 권사님: 신앙에 사투를 벌이면서 까지 지켜오신 신실하신 분으로 몸이 많이 약하시고 온누리교회 7시 예배 찬양단이십니다. 제주도 수련회 가셨다가 넘어지셔서 다리골절로 수술도 하시고 ... 요즈음 FTS를 열심히 하시므로 BEE 조찬 모임과 루체에 잘 참석은 못하고 계시지만 조용하고 침착하신 신실한 분이십니다. 헵시바 기도모임의 멤버로 활약하시며, 불편한 몸으로 소망 교도서에서 일 대일을 끝까지 무사히 마치셨습니다.

최봉선 목사님: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도소 사역에 소명을 두고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교도소에 뿌리고 있습니다. 가꾸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까지 소명을 충실히 하겠다는 목자입니다.

이상으로 우리 인도네시아 팀을 소개 하였으며 한 가지 더 인도네시아서 있을 컨퍼런스 및 졸업식이 6월 11일-18일까지 행사가 있습니다. 우리 팀 5명이 아우리치에 참가할 예정입니다. (글:조정문, 편집:이경주)